

- 이론 규범 윤리학

- 도덕적 행위 규범과 근본 원리가 성립될 수 있는지 연구하는 학문이다.
- 도덕적 행위, 가치 있는 삶을 분석
- 인생에서 가치의 문제 · 가치판단(당위)에 관심을 가진다.

- 실천 규범 윤리학 (= 응용 윤리학)

- 삶의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도덕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는 학문이다.
-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.
- 학제적 성격을 가진다. (외부학문 응용)

- 이론과 실천 규범 윤리학 공통점은

- 도덕적 행위를 다루고,
- 바람직한 삶과 사회상을 제시하고자 시비선악에 대한 가치 판단이나 당위성을 따지고자 한다.
- 도덕 이론들의 타당성을 규명하는데 관심을 가지고, 선악 판단의 기준을 마련하여 선을 실천하는데 관심을 가지며 현실의 윤리 문제를 탐구하고 올바른 실천을 하도록 안내한다.
- 둘이 상호보완적 관계를 가진다.

- 메타 윤리학

- 도덕적 언어나 의미의 분석을 윤리학적 탐구의 본질로 삼는 윤리학이다.
- 윤리학 자체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 여부
- 도덕적 용어 · 개념의 의미
- 도덕적 진술 · 담화 · 발화 · 추론의 논리적 타당성을 연구함
- 접근 방식 : 의미론, 인식론, 논리적 접근을 하고자 함

- 기술 윤리학

- 객관적·가치중립적·경험적 서술·설명에 중점
- 대상 : 각 사회의 도덕적 관행 · 현상, 구성원들의 윤리관 · 가치관
- 윤리적 상대주의를 조심해야한다.

- 유교 (공자, 맹자)

- “인”
- 공동체주의적 입장을 취한다.
- 선한 본성은 이미 하늘로부터 부여받음 -> 하늘의 의지가 인간에 내재되어있다고 봄
- 선한 본성과 선한 마음이 누구에게나 주어져있고 사단을 사덕의 단서로 보면서 사단을 확충할 것을 강조한다.
- 수양을 한다면 성인, 군자가 될 수 있다.
- 이상적 인간이 되려면 효제와 충서를 실천하고 분별적 지혜를 기르면서 자신의 욕망이나 감정을 잘 다스리는 수양을 해야한다.
- 경과 성의 수양을 통해 지나친 욕구를 극복하고 예를 회복해야한다.
- 홀로 있을 때에도 항상 조심하고 삼가야한다. (신독)
- 도덕적 공동체 실현하기 위해서는
[정명], [오륜], [효제], [충서], [수기안인], [향산], [덕치] 를 실현해야한다.
[맹자] : 특히 무향산 무향심, 선비는 무향산이라 해도 향심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.
· 일반 백성은 향산이 지켜지지 않으면 무향심이 된다.

- 불교 (석가모니)

- 만물은 상호 의존 관계다. (연기설)
- 윤회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해탈을 해야한다.
-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불성을 가지며 존엄하고 평등한 존재라고 봤다.
- 인간은 누구나 수행 (삼학)을 하면 주체적으로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.
- 보살은 대승 불교의 이상적 인간상, 위로는 진리를 구하고 아래는 중생을 구제한다.
- 불교는 인간의 내면을 성찰하고 정신 수양을 하는데 기여할 수 있고,
- 생명 경시나 생태계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고,
- 보편적인 인류애의 중요성 자각에 기여할 수 있다.

- 도가 (노자, 장자)

- 무위자연 : 도에 따라 인위적으로 강제하지 않고 자연스러움을 따르는 삶
- 소국과민 : 노자가 제시한 이상 사회. 영토가 굉장히 작고 인구가 적은 국가
- 소국과민의 특징은 문명의 발달이 없으며, 백성들의 삶이 소박하고 순수
- 인위적인 제도나 규범으로부터 자유로운 무위와 무욕의 사회
- 생명을 소중히 하며 통치자보다 백성을 중시하는 국가이며
- 억지로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저절로 잘 이뤄지는 사회
- 장자는 세상 만물은 평등한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한다.
- 모든 만물을 가지런히 바라보는 제물의 경지를 강조한다. [좌망], [심재], [허심]
- 제물 : 모든 것을 평등하고 차별없이 대하게 되는 경지
- 좌망 : 조용히 앉아서 자신을 구속하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것
- 심재 : 마음을 비워 깨끗이 하는 것
-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지인, 진인, 신인, 성인으로 꼽는다.

- 유·불·도 사상의 공통점은

- 본성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을 설정
- 이상적 인간이 되기 위한 끊임없는 수양을 강조하고 누구나 이상적인 인간(성인)이 될 수 있음
-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강조 (이기적인 욕망을 절제하고 공동체에 참여할 것을 강조)
- 생명 존중, 자연과 하나가 되는 조화의 모습 강조
- 정치적·사회적 측면에서 지혜와 대안을 제공

- 칸트

- 오로지 의무 의식과 선의지에서 비롯된 행위만 선하다고 봤다.
 - 정언 명령 / 도덕과 행복이 양립 가능하고 의무가 문제일 때는 행복을 고려하지 않는다.
- 보편화의 원리(주관적에서 보편적으로 확대) -> 인격주의의 원리(보편적)
- 부합 시 도덕 법칙이고, 부합되지 않는다면 도덕 법칙이 아니다.
- 스스로 세운 행위 원리는 보편적 도덕 법칙이 될 수 있으나 모든 행위가 도덕 법칙인 것은 아니다.

- 자연법 윤리

- 이치에 부합하며 상식을 가지고 이성적 법칙을 갖는다.
- 자연법의 의미는 모든 인간에게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보편적인 법
- 불문성, 영구불변성, 보편타당성, 인식가능성의 성격을 가진다.
- 국가의 실정법이 자연법에 근거한 자연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경우 실정법의 효력이 상실된다.
- 대표적 사상가는 아퀴나스
- 법체계 : 영원법 -> 자연법 -> 실정법
- 자연권을 강조했다. (천부인권, 자연법적 권리)
- 도덕적 직관을 통해 일상적인 도덕 판단의 원리 및 과정을 잘 설명해준다.

- 공리주의

- 행위가 유발하는 쾌락이 선이다.
 - 결과론적 윤리설이다.
 - 사상적으로 쾌락주의를 지향한다.
 - 쾌락은 선, 고통은 악
 - 최대 다수 · 최대 행복의 원리
 - 사익과 공익의 조화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한다.
 - 융통성 있는 방안과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대안을 도출할 수 있다.
 - 다만 다수의 이익(유용성) 때문에 소수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.
- [벤담(양적공리주의)]
 - 쾌락은 질적 차이는 없고 양적 차이만 있다.
 - 쾌락을 제재하려면 외적 제재, 신체적 · 정치적 · 도덕(대중)적 · 종교적 제재를 이용
- [밀(질적공리주의)]
 - 쾌락은 양적 차이 뿐만 아니라 질적 차이도 존재한다.
 - 정신적 교양을 추구하고 내적인 양심의 제재를 통한 정의와 공익 실현을 강조한다.

· [규칙 공리주의]

- 벤담의 행위 공리주의는 일반적인 상식과 배치되는 비도덕적인 결론에 이를 수 있다. (부당한 행위를 합리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.)
- 개별 행위의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고 규칙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보편화되기 어렵다.
- 행위마다 유용성을 적용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고 번거롭다.
- 현대 규칙 공리주의는 규칙과의 일치 여부를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한다
- 다만 원칙이란 특수한 상황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
- 규칙끼리 충돌하여 갈등하는 경우 결국 개별 행위에 직접 공리의 원리를 적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.

- 덕 윤리(매킨타이어)

- 현대 덕 윤리는 보편적인 도덕 법칙이나 원리만을 강조하는 근대 법칙 윤리에 대한 비판
- 인간의 성품이나 덕성, '잘 사는 것'과 '덕'을 강조하는 전통 윤리에 주목한다.
- 자유 시장 경제의 이기심 추구로 인해 공동체 질서가 붕괴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.
- 특징으로 인간의 성품과 덕성을 강조하고
- 인간의 도덕적 감수성을 중시하며 자발적으로 도덕적 행위를 하도록 고무한다.
- 인간관계의 구체성을 강조하고, 반복적 실천을 강조하고, 공동체적 삶을 강조한다.
- 이로 인해 근대 법칙 윤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으나
- 특정 사회의 전통이나 문화의 특수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보편성 확보가 어려워 윤리 상대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다.
- 근대는 자유주의적 법칙 윤리, 현대는 공동체주의적 사고, 맥락적 사고
- 근대는 행위 원리 중시, 보편성을 강조하지만 현대에는 행위자의 성품과 특수성을 강조한다.
- 근대는 이성적 판단에 따른 행위를 실천하지만 현대는 자발적으로 행위하는 것을 실천한다.
- 나의 정체성은 공동체의 역사로 인해 생긴다!

-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윤리

- 목적론적 세계관 : 자연 안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추구하는 목적이 있다.
- 행복은 최고선이다.
- 지성적인 덕은 이론적 지혜(철학적 지혜)와 실천적 지혜다.
- 교육을 통해 형성되며 덕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.
- 품성적인 덕은 용기, 절제, 긍지, 친절 등등이 있다.
- 감정과 욕구의 측면이 이성의 평령에 따르면 얻게 되는 것이며 유덕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습관화함으로써 형성된다.
- 중용은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생활 자세다. 산술적 의미가 아닌 상황에 따른 이성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한 적합하고 타당하며 옳은 것이다.
- 실천적 지혜에 의해 판단되고 실천 의지를 통한 습관화를 통해 형성된다.
- 그 자체로 이미 나쁜 감정이나 행위는 중용이 될 수 없다.

- 동양의 죽음관

[공자]

- 죽음은 인간의 삶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일이고 죽음을 맞았을 때 애도해야한다.
- 죽음 이후보다 현실의 도덕적인 삶을 중시한다.
- 살아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에게 예와 관계를 계속 유지한다.
- 죽음이 아쉽지 않도록 삶이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살아야한다.

[석가모니]

- 인생은 고통이다.
- 삶과 죽음은 하나(생사일여)이며 차별없는 연속적 순환 과정이다.
- 인과응보의 과정을 거친다. (업보)
- 열반에 들어야(해탈) 고통(윤회)에서 벗어날 수 있다.
- 만물의 상호 의존성에 대한 사물의 실상에 대한 깨달음을 강조한다.

[장자]

- 생사는 기가 모이고 흩어지는 과정일 뿐이고 사계절이 지나가는 것과 같이 자연스러운 과정이다.
- 삶과 죽음 사이에 차별이 없고 죽음에 대해 애도할 필요가 없다.

- 서양의 죽음관

[플라톤]

- 영혼의 활동을 통해 진리의 세계(이데아)로 갈 수 있다고 주장
- 육체에 갇혀 있던 영혼이 죽음을 통해 이데아로 들어갈 수 있다.
- 죽음 이후에야 비로소 간절히 바라는 순수한 진실을 알게된다.
- 죽음을 영혼이 육체로부터 해방되는 일종의 축복이다.

[에피쿠로스]

- 죽음은 경험할 수 없는 것이니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
- 죽음은 절대적인 소멸이므로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다.
-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현실에서 쾌락과 마음의 평안을 제공한다.

[하이데거]

- 실존주의 주장
- 죽음은 결코 넘어서 수 없는 것이고 인간에게 불안감을 주는 것이다.
- 죽음은 홀로 떠안아야 할 문제다. (죽음에 대한 선구적 결의)
- 인간은 죽음을 직시함으로써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가며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.

- 성의 의미와 가치

- 생물학적 성
- 사회 문화적 성 : 사회 안에서 형성되고 습득된 성
- 욕망으로서의 성
- 생식적 가치
- 쾌락적 가치
- 인격적 가치 : 사랑하는 사람과 신체적 · 정신적으로 하나가 됨

- 에리히 프롬의 사랑의 기술

- 사랑은 자연적인 일이 아니라 기술적인 일
- 사랑의 요소 : 사랑에는 책임, 존경, 이해, 보호 등과 같은 인격적 가치가 내포되어야 함
- ‘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’

- 배려윤리

[길리건]

- 여성의 도덕성과 남성의 도덕성은 다르다.
- 남성은 독립적, 여성은 친밀감을 우선으로 한다.

#직업관

- 동양의 직업관

[공자]

- 정명사상 : 명분을 바로잡아야 함을 강조
- 각자 맡은 일 잘하자
- 도덕적 명분이 실리보다 더 중요하다.

[맹자]

-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구분
- 도덕성 실현 정도에 따라 대인(정신노동)과 소인(육체노동)으로 역할을 구분한다.
- 사회적 분업을 통한 도덕 공동체의 실현 및 생산성 증대 강조
- 직업 간 상호 보완적 관계 중시

[순자]

- 성악설 주장
- 예를 통한 사회적 분업을 강조
-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과 그들을 지도 · 관리하는 사람으로 구분했다.
- 선천적인 신분보다 후천적인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.

[정약용]

- 관직을 부여할 때 능력을 기준으로 선발해야함을 강조
- 직업에 대한 신분적 제약에서 벗어나 직업 수행 능력에 따라 직업 분업이 이루어져야 함
- 세습적 신분에 따라 직업이 정해지는 것을 원치 않음

- 서양의 직업관

[플라톤]

- 철인정치
- 국가 3계급설(통치자, 방위자(군인), 생산자) : 3계급 다 절제의 덕을 갖춰야 한다.
- 타고난 성향과 자질에 따라 한 사람이 한 가지 일에 종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- 정신노동을 육체노동보다 높게 쳤다.

[중세시대]

- 노동을 속죄의 의미로 신이 부과한 것으로 봤다. (중세 크리스티교도)
- 노동을 저주나 회피의 대상, 수도원 생활과는 비교가 안되는 저급한 일이다!

[칼뱅]

- 인간의 모든 세속적인 직업 활동은 신의 소명에 의한 것
- 소명은 신의 영광을 현세에서 드높이는 것, 이웃에 대한 봉사라는 뜻
- 현세적 금욕주의 : 자본이나 부의 추구를 부정하지 않으며, 근면한 노동과 신에 대한 헌신에 의한 부의 추구는 이상적으로 봤다.
- 직업에 귀천이 없다!

[베버]

- 프로테스탄티즘 윤리가 자본주의 발전의 정신적 토대가 되었다고 주장한다.
- 직업 활동에 있어 금욕이라는 신에 대한 의무가 부의 축적을 정당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봤다.
- 청교도들은 이미 구원을 받을 사람이 예정되어있음을 강조한다.

[마르크스]

- 자본주의에서의 노동은 노동 소외를 부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.
-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노동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.
- 분업을 해서는 안된다고 봤다. / 유일하게 분업을 반대한 철학자

- 니부어의 사회 윤리

- 개인이 도덕적이어도 사회는 도덕적이지 않을 수 있다.
- 도덕적인 개인도 공동체로 모이면 비도덕적인 판단을 내린다.
- 개인의 이기심은 집단에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.
- 개인 간의 문제는 개인끼리 해결할 수 있으나 단체 간의 의견 대립은 합리적이지 않은 힘의 논리로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. → 국가의 공권력이 필요한 순간 /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강제력

- 고대 사상가의 정의관

- 공자 : 눈앞의 이익보다 의리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함 (견리사의)
- 맹자 : 부정의한 현실에 대해 저항하는 의로운 마음을 가져야 함 (수오지심)
- 소크라테스 : 질서가 잘 잡힌 영혼이 추구하는 본성이 곧 정의임
- 플라톤 : 각자 자기 계급의 일에 전념하고 다른 계급의 일에 참견하지 않는 것이 정의임

-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관

- 같은 것은 같게, 다른 것은 다르게
- 비례를 추구함 *산술, 기하학 비례 서술

- 롤스의 정의관

- 민주주의적 평등, 순수 절차적 정의, 사회적 약자 배려, 공리주의 비판이 사상적 성격
- 정의관을 도출할 때, 원초적 입장에서 도출해야한다고 주장한다. (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정의관 도출)
- 원초적 입장에서는 남에게 관심이 없으며 자신의 이익을 고려할 수 있는 이성적 존재를 인간상
- 무지의 베일을 설정해서 우연적 요소를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. (특출난 능력 배제)
- 선천적으로 해당할 수 있는 요소들로만 정의관이 도출되게끔
- 자신의 타고난 자연적 · 사회적 우연성을 모르므로 정의의 원칙에 대해 만장일치의 선택이 가능하며
- 자신이 열악한 환경에 처했을 때 최선의 이익이 되는 분배 방식에 동의할 수 있다.
- 정의의 원칙 : 모든 사람이 동의한 보편적 구속력을 부여받은 원칙
- 정의의 원칙은 권리 할당과 이익 배분의 근거 원리로 사용한다.
- 제1원칙은 기본적 자유에 대해서, 제2원칙은 불평등에 대한 것
- 사회 제도가 정의로운지의 여부를 판단해주는 원칙이다.

[제1원칙]

- 각 개인은 기본적 자유에 있어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한다.
- 제2원칙을 위해 제1원칙이 침해될 수 없다.

[제2원칙]

-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 : 단순히 직업 도는 직책의 기회뿐만 아니라 삶의 기회들까지 평등화해야한다.
- 차등의 원칙 : 불평등의 원칙은 인정하지만 가급적 배분의 최종 결과를 평등하게 조정해야한다.
- 자연적 우연성(천부적 능력)을 활용하는 것이 모든 구성원들의 이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으나
- 천부적 재능 분포의 우연성에 따른 불평등은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.
- 하지만 사회적 약자 보호 또는 복지를 위해 기본적 자유를 제한할 수 없고 실질적 평등을 도모한다.
- 롤스는 질서 정연한 사회를 이상사회로 주장했다.
- 사회 제도의 제1덕목을 정의로 꼽았으며 재산 소유 민주주의가 요소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.

- 노직의 정의론

- 롤스의 견해에 대해서 절차를 강조한다고 하지만 결국 결과를 강조하게 되고 정형화된 원리를 강조하고 경제적 불평등의 최소화, 적극적 자유 증진, 강제는 정의롭지 않다고 반박한다.
- 자유로운 경제 활동 과정에서 다른 구성원들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면 개인은 정당한 과정을 통해 얻은 소유물에 대한 절대적 권리를 가진다.
- 획득 과정의 공정성이 소유권의 근거가 된다.
- 한 소유물에 대한 소유 권리가 있는 자로부터 정당하게 양도받은 그 소유물에 대한 소유권리는 양도 받은 사람이 해당 소유물에 대한 소유권리를 가진다.
-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때는 도덕적으로 권장하지만 의무나 강제적 요소는 아니다.
- 노직이 추구하는 이상사회는 최소 국가론이다.
- 최소 국가론에서는 자연 상태에서 개인이 갖고 있던 그 어떤 권리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국가라고 생각했다.
- 강제적인 세금 징수를 반대했다.
- 복지 실현을 위한 국가의 재분배 정책에 반대하지만 부정의 교정을 위한 재분배는 인정한다.

- 롤스와 노직의 사상적 공통점

- 국가는 시민의 기본적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며 (자유주의)
- 사유 재산권은 개인의 기본적 자유 안에 포함하며 (시장경제)
- 사회 전체의 행복을 위해 각 구성원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 침해는 부당 (사유재산 인정)
-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해도 분배적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. (정의와 불평등이 양립 가능하다)
- 개인은 타고난 재능을 발휘해 이득을 얻을 수 있다.
- 절차의 공정성은 결과의 공정성을 보장한다 (절차적 정의)
- 부정의를 교정하기 위한 재분배는 인정하고
- 세금 징수를 인정한다.

- 왈처의 정의관

- 어떠한 사회적 재화도 지배적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.
- 분배의 기준으로 안전과 복지는 필요에 따라, 돈과 상품은 자유 교환으로, 정치권력은 토론과 민주주의에 입각, 공직은 자격과 기회의 공정성에 따라, 기초 교육은 사회적 특수성과 평등의 원칙에 따라 분배해야한다.

- 마르크스의 정의관

- 인간의 본질을 노동하는 존재로 보았으며 노동의 본질은 자기 실현으로 봤다.
- 자본주의 사회를 분업을 통한 인간 소외, 강제 노동, 억압과 착취로 인해 노동의 본질이 왜곡된다고 봤다.
- 공산주의 국가에서의 분배 방식은 경제적 불평등 해소에 초점을 둔다.

[사형 제도에 대한 사상가별 구체적인 입장]

- 칸트 : 동해 보복적 응보주의

- 형벌은 범죄의 경중에 비례하는 보복의 수단이며 형법은 보복법으로 정언 명령이자 그 자체로 목적이며 범죄자는 범죄를 의욕했기 때문에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한다.
- 자신의 자율적 행위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지우는 것이니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한다고 생각했다.
- 유용성의 원리에 따라 사형제의 존폐를 논하는 것이 인간의 인격을 수단시 하는 것이라고 봤다.
- 형벌 그 자체가 목적이니 응보 이외의 다른 선을 가지고 형벌의 존폐를 논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이다.

- 루소 : 사회 계약설
 - 사회 계약의 목적은 계약 당사자들의 안전 확보 및 생명 보전
 - 계약 체결 시 살인을 저지르면 자신의 생명을 침해해도 좋다고 암묵적으로 동의했다고 봤음
 - 자신의 생명과 사회의 방위를 위해 극히 위험한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해야한다고 주장했다.
- > 사형하거나 국외 추방을 하거나
 - 살인범은 스스로 계약을 파기한 계약 파기자이자 공공의 적이므로 생명을 박탈할 수 있다고 봤다.
- 공리주의 입장
 - 모든 형벌은 필요악이며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유용성의 원리가 요건으로 활용된다.
 - 형벌을 통해 사회 전체의 이익과 행복이 증진될 수 있어야 하며 형벌의 양과 질은 해악, 심각성, 억제력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.
 - 형벌 실시로 인해 얻을 사회적 이익이 형벌 실시로 인한 사회적 비용보다 높아야 정당
 - 형량은 어떤 경우에도 범죄자가 위법 행위로 인해 얻을 이익보다 커야한다.
 - 불필요한 고통을 증가해선 안된다.
- 베카리아 : 사회 계약론
 - 그 누구도 자신의 생명을 박탈할 권리를 타인이나 국가에 양도하지 않았다.
 - 공리주의적 관점으로 봤을 때, 형벌은 사회적 유용성에 따라 범죄 예방을 하기 위해 필요하며
 - 형벌의 목적은 예방과 교화에 초점을 둔다
 - 형벌의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이 인간의 정신에 큰 효과가 있으니 사형보다 종신형이 더 효과가 있다.
 -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사형제는 폐지되어야 한다.
 - 범죄에 대한 형벌은 반드시 법률에 의해 부과되어야 한다.

[시민 불복종]

- 소로의 시민 불복종
 - 개인의 양심에 의거하여 정당화한다.
 - 모든 부당한 법에는 즉각 불복종해야 한다.
 - 자신의 양심에 반할 시, 정부가 마련한 방법을 기다리지 말고 즉시 불복종할 것
- 롤스의 시민 불복종
 - 사회 체제가 전체적으로 정의의 원칙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유지된다면 준법해야한다.
 - 시민불복종은 민주적인 헌법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막고자 하는 행위이다.
 - 다수의 정의관으로 정당화를 하며 평등한 기본적 자유 원칙과 공정한 기회 균등 원칙에 대한 현저한 또는 심각한 위반이 있어야 시민 불복종의 요건이 충족된다.
 - 사회 불복종을 하려면 확실한 성공 가능성에 입각해 최후적 수단으로 이뤄져야 하며
 -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비폭력적이고 처벌을 감수해야한다.
 - 공개적으로 시민 불복종이 이뤄져야 하며 공공의 이익에 초점을 뒀야한다.
 - 전제조건으로 입헌 민주주의의 체제여야 하며 심각한 경우에 이뤄지는 최후적 수단이다.
 - 시민 불복종은 정의의 원칙들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위반이 발생했을 때 정당화된다.
- 요나스의 책임윤리
 - 현대 과학 기술의 발달로 초래될 위험성이 증대되어 등장했다.
 - 현대 사회가 복잡해지고 익명성이 강해짐에 따라 공동 책임 또는 집단 책임이 무책임으로 전환됐다.
 - 전 지구적 차원에서의 책임을 강조한다.
 - 베버의 심정 윤리와 다른 점은 심정 윤리는 행위자의 선한 의도를 중시하는 반면 책임 윤리는 행위자의 결과에 초점을 둔다.
 - 요나스는 기존 윤리와 윤리적 공백 사태에 비판을 했다.
 - 인류 존속이라는 정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자연과 미래 세대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고 인간은 미래에 일어날 행위의 결과를 최대한 예측하고 예견할 수 있는 모든 결과에 책임을 져야한다.

- 인간 중심주의

- 인간만이 존엄하고 도덕적 지위와 내재적 가치를 갖고 있고 자연은 도구적 · 수단적 가치만 지닌다.
- 인간만이 도덕적 권리를 행사하고 자연은 도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.

[아리스토텔레스]

- 목적론적 관점 : 목적이란 사물 특유의 본질적인 기능, 모든 존재는 고유한 목적을 가짐
- 목적을 잘 수행할 때, 잠재 능력을 실현할 때 훌륭한 것
- 생명체 간 도덕적 위계질서가 존재한다.

[아퀴나스]

- 크리스티교적 사고에 기반한 목적론적 자연관 : 신의 계획과 의도에 의해 자연 질서를 성립함
- 인간이 동물을 이용하는 것은 신의 섭리이므로 인간이 동물을 죽이거나 이용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님

[베이컨]

- 아는 것이 힘이며 자연은 여성, 인간은 남성으로 비유
- 지식이란 자연에 대한 지식, 힘이란 자연을 지배하고 활용하는 능력이다.

[데카르트]

- 이분법적 자연관 :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을 구분해서 인간이 자연을 이용 · 정복하는 것을 정당화함
- 동물은 기계이며 인간만이 도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.

[칸트]

- 인간이 유일하게 직접적인 도덕적 의무 대상이며 동물에 대한 우리의 의무는 인간성 실현을 위한 간접적인 의무에 불과하다.
- 자연의 피조물을 잔인하게 다룰 경우 고통에 대해 공감을 일으키는 인가의 자연적 소질이 약화된다.

[온건적 인간 중심주의]

- 미래 세대의 권리를 강조하며 성찰적 선호(이성적으로 숙고된 판단 중시), 인류의 장기적 이익을 강조
- 인간이 진정으로 영리하다면 자원을 최대한 길게 이용하기 위해 환경을 보호할 것이며
- 미래 세대에 대해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은 환경을 보호할 것이다.

- 동물 중심주의

- 인간 이외의 자연적 존재들도 내재적 가치나 본래적 가치를 가진다고 보는 입장
- 도덕적 고려의 범위를 동물까지 확대해야하고 동물을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는 것을 반대하고 동물의 복지와 권리 향상을 강조한다.

[벤담]

- 도덕적 고려 대상을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능력을 가진 모든 존재로 확대해야한다고 주장
- 도덕적 지위의 기준을 감각을 느낄 수 있는지로 한다

[밀]

-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행위에 관한 규칙과 계율을 도덕이라 한다.
- 도덕적 고려 대상에 대한 태도에 있어 쾌락과 고통의 감정을 중시한다.

[싱어]

- 공리주의적 사고를 기반으로 동물에게도 쾌락의 극대화, 고통의 최소화의 원칙을 적용하고자 한다.
- 이익 관심을 갖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오로지 쾌고 감수 능력이다.
- 쾌고 감수 능력이 없다면 도덕적 지위를 갖지 못한다.
-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의 이익 관심을 동등하게 고려 및 배려해야 한다.
- 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종을 차별해서는 안된다.
- 동물 실험에 반대하지만 인간의 이익이 아주 크다면 동물 실험을 허용할 여지가 있다.
-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진 동물과 인간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아니고 권리를 동등하게 보지 않는다.

[레건]

- 성장한 일부 포유 동물에 대해 삶의 주체로서의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한다.
- 삶의 주체는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수단이 아닌 그 자체로 목적이다.
- 생태계 전체에 대한 도덕적 고려가 부족하며 도덕적 고려 대상을 편협하게 생각했다.

- 생명 중심주의

- 모든 생명체가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의식 유무나 대화 능력에 상관없이 모든 생명체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.

[슈바이처]

- 생명 외경을 도덕적 근본 원리로 삼는다.
- 모든 생명체는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 인간은 그 의지에 대해 두려움과 공경심을 가져야 한다.
-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 필연적이고 불가피하게 다른 생명을 해쳐야 하는 경우 생명의 차등성이 드러나고 이러한 불가피한 경우에도 도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.

[테일러]

- 모든 생명체의 내재적 가치를 인정한다.
- 목적론적 삶의 중심 : 모든 생명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연적 목적을 자기 방식으로 추구할 능력을 가진다.
- 불침해의 의무, 불간섭의 의무, 성실의 의무, 보상적 정의의 의무가 자연 존중의 의무이다.
- 생명 공동체에 대한 입장으로는 인간도 다른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지구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이며 지구의 자연적 생태 체계들은 긴밀하게 연결된 복합적인 네트워크이다.
- 생명 공동체 그 자체가 고유한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.

- 생태 중심주의

- 생명 중심주의의 개체론적 사고는 전체로서의 생태계의 가치를 설명할 수 없고 자연물들 간의 관계, 생태적 전체에도 직접적인 도덕적 지위를 부여한다.
- 자연은 살아있는 일종의 유기체로 간주되어야 하며 개별 생명체와 무생물들 간의 체계적인 상호 작용과 상호 의존성을 중시한다.

[레오폴드]

- 지구 내 모든 공동체를 다 포함해야 한다.
- 대지 공동체는 도덕적 지위를 부여받았고 개별 구성원들은 공동체의 구성원 또는 자원이다.
- 고도로 유기적인 구조의 복잡성을 가지고 진화가 천천히 이뤄진다.
- 인간은 생명 공동체의 평범한 구성원이며 생명 공동체의 온전함, 안정성 그리고 아름다움의 보전에 이바지하는 경향이 있다면 옳고, 그렇지 않다면 옳지 않다.
- 인간이 생명 공동체의 안정성을 해치는 개체의 개체 수를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있고
-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 인간이 동식물을 자원시 할 수 있다.
- 인간의 문화 행위나 개발 행위를 전면으로 부정하지 않는다.
- 인간이 대지를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을 부정했다.

[심층 생태주의]

- 레오폴드의 대지윤리보다 더 강한 실천을 강조한다.
- 인간은 생명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풍요로움과 다양성을 감소시킬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.

- 칸트의 영구 평화론

- 평화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
- 직접적인 폭력과 전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국내적으로 내정 간섭을 받지 않는 공화제를 만들고 각 국가가 보편적인 우호 관계에 따라 국제법의 적용을 받는 평화 연맹을 구성해야 한다.

- 갈통의 적극적 평화

- 적극적 평화는 간접적 · 구조적 · 문화적 폭력까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봤다.

- 왈처의 정의 전쟁론

-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쟁
- 전쟁은 때에 따라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봤다.
- 불간섭주의와 자결주의는 국제 사회의 중요한 도덕 원칙이지만 절대적이지 않으며 인도주의적으로 개입해야 한다.
- 인도주의적 개입 : 전쟁의 시작, 과정, 전쟁 후의 처리가 모두 정의로워야 한다.
- 국제 평화 실현을 위한 노력으로 개인적 차원으로는 상호 존중과 관용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.
- 국제적 차원으로는 국제 형사 재판소 등을 통해 반인도적인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하며
- 국제 사법 재판소, 국제 해양법 재판소 등의 기구를 활용해 관련된 분쟁에 대해 중재해야 한다.
- 국제 연합 평화 유지군 활동 등을 통한 분쟁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고 해결해야 한다.